여수산단 공업용수 갈증 풀린다

환경부·수자원공사, 공장 신·증설 맞춰 용수시설 준공 1년 앞당긴 2021년 마무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투자 기업들의 걱정거리였던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기업들이 건의한 하루 10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산단 내 공장 신·증설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GS칼텍스·LG화학 등 6개 기업은 2021년까지 6조1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쓰일 공업용수 확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용수관로 복선화·노후관 시설 보강·대체관로 설치 사업의 준공 시기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단계별로 마무리해 공장 신·증설 시기와 맞추기로 했다.

부족한 수량은 광주·목포지역에 배정된 주암댐 물량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이후에 추가되는 공장 신·증설 설비의 공업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정밀 수요조사를 거쳐 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누수 절감과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해 자체 수급 조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공업용수 추가 수요를 반영해 '광양Ⅳ단계 공업용수도사업'을 마련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실상을 파악한 뒤 여수산단 공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이번 여수산단 공업용수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전남지역에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 현대화와 품목 다각화 등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업용수나 산단 부지 확보 등 기업 애로사항이 적기에 해결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기업 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제1회 광산구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이 16일 호남대 IT스퀘어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남북연락사무소 24시간 소통 채널 순조"

김창수 사무처장 "개소 한달, 하루 2회 이상 대면접촉"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지난달 14일 개소한 이후 새로운 남북 간 협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창수〈사진〉 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이날 연락사무소 개소 한 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이 하루 평균 2회 이상 대면접촉을 해왔다"며 "연락사무소가 365일 24시간 소통 채널로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간 상주연락기구 설치 구상이 실현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한 달간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간 소장회의가 2회, 김창수 사무처장과 황충성 조평통 부장 간 부소장급 회의가 10차례 이상 진행됐다. 또 매일 오전·오후 정례 연락관 협의가 지금까지 30회 이상 이뤄졌다.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공동기념행사를 앞둔 지난 3일에는 남북 간 대면접촉만 7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연락사무소 2층에는 남측 인원이, 4층에는 북측 인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면접촉 외에도 수시로 직통전화(남북 사무소 간 2회선·숙소 간 1회선)나 무전기를 통해 유·무선으로 통화하고 있다.

야간에는 직접 상대 숙소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사무처장은 전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밤 9시 45분께 북측에서 우리측 숙소를 찾아와 10·4선언 공동행사 개최를 긴급 제안하기도 했다고 김 처장은 전했다.

그는 "역대 가장 활발한 남북 간 연락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야, 휴일·주말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상시 연락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연락사무소가 새로운 남북 간 협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북측도 남북 간 상시연락체계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다 연락사무소 초대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김창수 사무처장은 광주 출신으로 나주초등학교와 나주중학교, 광주 동신고를 거쳐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김 사무처장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2003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는 등 북한문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솔라시도' 스토리텔링으로 산업·관광 이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전남정보문화진흥원 협약

"1644년 4월25일 이자성의 반란군이 명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왔다. 명의 마지막 황제는 경산의 회나무에 목을 맸다. 명의 패망 소식은 정유재란 당시 수군 도독으로 조선에 파견돼 공을 세우고, 이순신과 깊은 교감을 나눈 진린(1543~1607) 장군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졌다. 후손들은 만주족의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전함을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조선(완도 고금도)이었다. 이곳에는 자신의 할아버지 진린 장군을 모신 사당과 당시 참전한 명군을 기린 관왕묘가 있었다. 이곳에 할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금도에 정착했다가 생활여건에 따라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로 이동했다. 한반도에 정착한 광동 진씨 이야기다. 이들은 마지막 정착지에 진린 장군과 선조들을 모신 사당을 세우고 향사했는데, 이곳이 바로 황조별묘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옛 J프로젝트)의 감춰진 이야기다.

솔라시도 구성지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6일 구성지구 현장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솔라시도 산업과 관광을 이끌 스토리텔링을 강화한다.

협약에 따라 솔라시도가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황조별묘 등 인문자원을 발굴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발굴한 스토리와 문화콘텐츠는 AR·VR·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향후 관련 공연·축제 등에 활용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솔라시도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지역 관광·ICT 융합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진흥에 힘을 쏟는다. 솔라시도가 지닌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환경, 우수한 일조량 등도 부각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사업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솔라시도 산업·관광을 이끌 스토리텔링 발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곳에는 한·중 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명나라 진린(陳璘) 장군의 후손들이 정착한 황조별묘가 있으며, 당나라 때 중국으로 건너간 김교각 등 견당사들이 이용하던 해로도 있다.

또 일본에 한국 문화를 전파한 왕인박사 유적과 명량해전의 중심지인 우수영 등에 인접해 있어 스토리텔링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솔라시도 관계자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면 무안공항이나 크루즈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JSA 이달 비무장 완료…자유왕래 '눈앞'

16일 첫 회의가 열린 남과 북, 유엔사 3자협의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말 그대로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이달 안으로 비무장화 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9·19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성과를 낸 첫 공동작품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경비를 서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이다.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찬다.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과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그리고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된다. 인근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다. 대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새로 들어설 북한측 초소 인근에 우리 군 초소가 있다.

또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 외국 관광객 등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삽니다.010-3605-5000

경매비법 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교육/임장비 1200만원(3개월)
· 배우면서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풍수 사주 ▶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 강 (초급 및 중급)
• 일 시 :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링크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링크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글로링크 에듀센터 순천광양국제캠퍼스
홈플러스 · 삼성디지털 프라자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연동대주 파크빌3차 아파트 · 조례초
파격가 임대!! ▶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100%전세도 환영
(전세가능)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약국, 편의점, 안경점 등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치학원, 입시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종호